



여객 버스에 오르며 손을 흔드는 프랑스 선수들.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관일 기자 cki@kwangju.co.kr

의견을 듣고는 '이런 대회도 있어'라며 '내성형의' 박을 내린다. 억으로 남겼다.

/최관일 기자 cki@kwangju.co.kr

무으로
 상에
 은 계
 다며
 하반기
 (일) 합
 병청, 대
 립을 모

 성과 성
 트플타
 표된 강
 리 사업
 집중되
 문제가

 4차산

광주세계수영대회 시민서포터즈와 광주국제우호친선협회 회원들이 19일 오전 광주시 광산구 수영선수촌에서 마스터즈대회를 마치고 광주를 떠나는 각국 선수단과 아쉬운 작별을 나누는 환송식을 마치고 각국 선수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미래 꿈꾼다

 계장
 꿈꾸는 마음입니다
 찾고 어촌에 살고
 것이라는 확신으로
 습니다.
 씨의 목소리는 자신
 었다. 올해로 12년째
 하고 있는 김씨는 어촌
 21 (0.264)